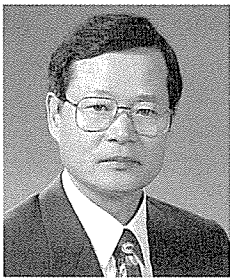


61년 창립, 4백여 회원...매년 학술대회 대한감염학회

1961년 53명의 감염관련학자들이 모여 창립한 대한감염학회는 현재 4백여명의 회원으로 신장하여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왕성한 연구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69년에 학술지 「감염」을 창간하여 현재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에 대비한 학술교류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崔康元

(서울대 의대교수/내과)

는 우리 인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십여년 후에는 우리 인류의 미생물과의 싸움이 전적으로 미생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 감염학을 다루고 있는 대한감염학회의 역할은 점점 더 그 비중을 더해간다 하겠다.

53명의 회원으로 61년 창립

대한감염학회는 1961년 11월1일 기용숙교수 외 41명의 감염관련 학자들이 모여 발기하였으며, 그해 11월11일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임명재박사, 부회장에 전중휘교수를 선출함으로써 창립되었다. 대한감염학회의 발족은 8·15 해방과 6·25 동란 등 시대적 혼돈과 그에 따른 각종 전염병이 만연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의학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었다. 대한감염학회는 1962년에 대한의학협회 산하 분과학회에 가입하였으며, 1966년 분과학회협의회 창립시

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당시 감염학회 회장이었던 전중휘교수가 제3, 4, 5대 분과학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임명재 초대 회장(1961~1963)에 이어, 제2~8대 회장에 전중휘교수(1964~1977), 제9~13대 회장에 정희영교수(1978~1987), 제14, 15대 회장에 박승철교수(1988~1991), 제16대 회장에 류지소교수(1992~1993), 제17대 회장에 최강원교수(1994~현재)가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립당시 53명의 회원으로 발족하였던 대한감염학회는 현재 4백여명의 회원으로 신장하였으며, 감염학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내과, 소아과, 임상병리과 등 임상분야는 물론, 미생물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등 기초분야의 관련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초-임상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학회의 조직은 회장 이하, 부회장 및 감사,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 간행부, 연수교육부의 5개부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학회창립 다음해인 1962년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발표연제 수는 1962년 제1차 학술대회에서 8편, 1963년 제2차 학술대회에서 25편이었으나, 1996년 제35차 학술대회에서는 73편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왔다. 학술대회는 회원들의 연구에 대한 구연 및 포스터발표는 물론, 중요한 감염관련 주제를 한가지 선정하여 심포지엄을 열므로써 회원들에게 폭넓은 의견교환과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봄에는 감염학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한화학요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양학회간의 공동관심사를 토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는 매월 일회씩 월례집담회를 개최하여 특정 증례 및 주제에 대한 회원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도모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연수강좌로 형식을 바꿔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주제가 다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술지 「감염」 격월로 발간

대한감염학회의 학술지 「감염」은 1969년에 처음으로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1984년부터 연 2회, 1987년부터 연 4회로 증간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연 6회 격월간으로 증간하여 1997년 10월 현재 제 29권 제5호가 발간되는 등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992년에는 국내 감염관련 논문색인집 발간사업을 시작하여 1990년 이후 우리나라 65개 학회지 및 논문집에 실린 감염질환 관련논문을 모두 찾아 정리하여 1994년에 발간하였으며, 1996년에는 다시 증보하여 CD-ROM으로 배부하였다.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 감염학의 발전과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한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대한감염학회가 제정한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세계 속의 학술단체로 자리잡기 위하여 국제학술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차로 인접한 중국, 일본 등 극동지역국가와의 정기적인 학술모

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 춘계학술대회에는 중국전염병학회 회장단이 참석하였으며, 그해 가을에는 대한감염학회 회장단이 중국전염병학회에 참석하여 양국간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1996년 추계학술대회에는 일본감염병학회 회장을 초청함으로써 학술교류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다. 그간 대한감염학회는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전염병과 감염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기초 및 임상연구를 통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국내 보건문제에 관한 보건당국의 자문요구에 신속히 응함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발생시 그 지역을 방문하여 발생원인과 전파경로를 규명하고, 나아가서 예방대책을 세움으로써 국가방역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도 중요 업적의 하나라 하겠다.

‘성인예방접종위원회’도 구성

한편 올바른 항생제 사용 및 처방을 위한 교육 및 계몽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올바른 항생제 사용의 정착을 꾀하고 있다. 국내 주요 감염질환에 대한 고유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확립키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성인폐렴의 치료지침을 준비 중



▲ 지난 91년 11월 2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감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를 마치고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에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사업으로써 국내 폐렴의 원인균을 규명키 위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소아 뿐만 아니라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재평가와 함께 현실에 맞는 예방접종지침을 확립키 위하여 ‘성인예방접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감염학회로서 해야 할 연구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첫단계로써 남북한 감염관련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정보교류 및 공동조사 그리고 남북한간의 학술교류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선진학문을 도입하고, 심도깊은 연구활동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한국소아감염병학회 등 감염관련 학술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정립 및 공동발전 모색은 물론, 나아가서 관, 산, 학, 연 유관기관과의 학술적 우대를 돈독히 할 계획이다. 67